말기환자에게 치료방식 선택권 줘야

의료진, 환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정보 제공해야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있습니까?"

안젤로 볼란데스(Angelo Volandes) 미국 하버드대 의대 교수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 : 말기환자 케어의 혁신' 주제로 '제7회 Korea Healthcare Congress'에서 기조연설하며 질문을 던졌다.

볼란데스 교수는 각 나라에서 말기환자 케어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환자가 원하는 치료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대화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말기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죽음과 치료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의료진이 정보를 제공하고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시스템에서 벗어나 집에 머무르며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임종하길 원하는 많은 환자들이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정맥주사를 맞으며 의료기기와 연결된 채 고통 속에서 사망하고 있다"면서 "환자가 원하지 않는 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과오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볼란데스 교수는 말기환자들이 자신의 치료방식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중환자실 등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말기환자가 의료기기에 의존해 누워 있는 모습, 심폐소생술 장면 등을 직접 본 환자들은 대부분 연명의료(Life-Prolonging Care) 대신 제한적 치료(Limited Medical Care)나 완화의료(Comport Care)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방식 결정에 대해 구두로만 설명한 집단과 구두설명과 함께 동영상을 보여준 집단으로 나눠 비교했을 때 선택 결과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두설명만 들은 집단에서는 26%가 연명의료, 52%가 제한적 치료, 22%가 완화의료를 선택했다.

반면 구두설명과 함께 동영상을 보여준 그룹에서는 연명의료를 선택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4%가 제한적 치료, 92%가 완화의료를 선택했다. 4%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환자들은 동영상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 지 알게 됐고, 의료진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싶은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볼란데스 교수는 "말기환자가 자신의 치료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화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환자의 존엄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이 환자와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병원은 환자를 위해 존재하며, 의료진과 대화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인 사 강원도 횡성군보건소 민선향 소장

강원도 횡성군보건소 소장(직무대리)에 민선향 보건행정계장이 임명됐다. 11월 10일자.

민선향 소장은 1983년 한림대(구. 춘천간호전문대)를 졸업했으며, 한국방송통신대에서 간호학 학사학위를 받았다. 1984년 횡성군보건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횡성군보건소에서 줄곧 근무하며 예방의약계장, 방문보건계장, 건강관리계장 등을 지냈다.

민선향 소장은 "내적으로는 전문가로서의 자질함양에 힘쓰며 업무에 열정과 최선을 다하고, 지역 보건정책을 책임질 줄 아는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12월 현재 간호사 출신 보건소장은 민선향 소장을 포함해 모두 14명이다.

최수정 기자 sjchoi@

재독한인간호협회 문정균 부회장 여가부 장관 표창

문정균 재독한인간호협회 제3부회장이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유공자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상식은 지난 8월 24~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 제16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대회에서 진행됐다. 문정균 부회장은 전 독일코윈 담당관 자격으로 수상했다.

코윈은 5대양 6대주를 총망라해 기업, 교육, 문화, 과학, 기술 등 각 분야 한인여성들이 모이는 핵심 네트워크다. 2001년 여성부 출범과 함께 시작됐으며 매년 대회가 열린다. 세대·지역 간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교포 2세 및 현지인들에게 모국의 문화를 알리는 등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고취시켜왔다.

정규숙 기자 kschung@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시험 445명 합격

제8회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시험을 통해 445명의 보험심사관리사(1급)가 배출됐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원장·양수)은 제8회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12월 16일 발표했다.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시험은 11월 26일 치러졌으며, 1급 자격시험 응시자 총 702명 가운데 445명이 합격했다.

합격자 명단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홈페이지(kabone.or.kr)를 통해 공고했다.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시험은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치러졌다. 필기시험 과목은 보건의료관계법규, 보험심사관리학 개론, 보험심사관리학실무 총론 Ⅰ·Ⅱ 등이다.

김숙현 기자 shkim@

충북보건진료소장회 직무교육 및 총회

충북보건진료소장회(회장·김금자)는 충북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회장·박팔희)와 공동으로 일차보건의료업무 연계망 강화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2016 직무교육'을 11월 29일 개최했다.

직무교육에서는 박희제 충북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농촌지역 근골격계 재활'에 대해 강의했다. 한명자 충북간호사회장이 '웰다잉' 주제로 특강했다.

이어 정기총회에서는 새 회장으로 이예숙 청주시 추학보건진료소장을 선출했다.

이예숙 신임 회장은 "업무수당 개선 등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사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대한질적연구학회 총회 … 질적연구 입문서 발간키로

대한질적연구학회(회장·고문희)는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12월 10일 열고 2017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했다.

학회는 질적연구 활성화와 회원 연구 역량강화에 매진할 계획이다. 초보연구자들이 질적연구 입문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질적연구 길라잡이'를 발간할 계획이다.

학술대회, 학술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한다. 해외연자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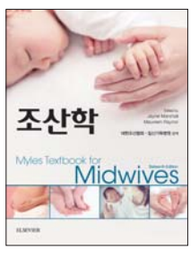
올해 창간한 대한질적연구학회지의 질 향상 및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회원들의 논문 투고를 독려하고, 게재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비 지원사업을 계속키로 했다.

학술대회는 '내러티브 연구의 이해' 주제로 열렸다.

김숙현 기자 shkim@

연간 발행계획에 따라 12월 29일자 신문 휴간합니다.

대한조산협회, 조산학 교재 발간



대한조산협회(회장·이옥기)가 '조산학-Myles Textbook for Midwives'를 발간했다. 조산학 교재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대한조산협회와 일신기독병원이 공동으로 번역했다.

교재는 △조산사 △해부학과 생식 △임신 △분만 △산욕기 △신생아 등 6개 섹션, 총 34개 챕터로 구성됐다.

여성의 임신-분만-산후관리, 신생아 관리, 여성건강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근거중심의 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기 쉽게 다루고 있다. 조산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은 물론 실무현장의 조산사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교재다. 엘스비어/770쪽/값 10만원.

34개 챕터는 다음과 같다.

△조산사= 조산사를 위한 최신 조산실무, 조산사와 조산실무에 관련된 전문직 쟁점 △해부학과 생식= 여성골반과 생식기관, 여성비뇨기계, 호르몬주기 : 수정과 배아 발달, 태반, 태아 △임신= 출산과 육아를 위한 산전 교육, 임신의 변화와 적응, 산전 간호, 산모와 태아의 산전 선별검사, 임신기 동안의 흔한 문제, 조산실무에서의 주요한 의학적 상황, 다태아 임신 △산욕기= 산욕기의 생리와 간호, 산욕기의 신체적 건강문제와 합병증, 주산기 정신건강, 모성간호에서의 애도와 상실감, 글로벌 사회에서의 피임과 성 건강 △신생아= 건강한 만삭아의 신생아 검진에 대한 인식, 출생 시 소생술 : 신생아의 보온, 기도유지, 호흡의 중요성, 건강한 저체중 출생아, 분만 중 외상, 출혈, 경련, 선천성 기형, 신생아에게 중요한 문제, 모유수유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교재 구입은 대한조산협회 홈페이지(www.midwife.or.kr)에서 '조산학 도서신청' 메뉴를 클릭한 후 온라인 도서주문 신청서에 입력하면 된다. 특별할인가격 9만원(택배비 포함)에 판매하고 있다.

최수정 기자 sjchoi@

게 시 판

세브란스병원 간호국 학술대회

세브란스병원 간호국(간호담당부원장·오경환)은 간호국 학술대회를 2017년 1월 20일 오후 3시30분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간호연구 논문 구두 및 포스터 발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공지능 vs 인간' 주제로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특강. 02)2228-6804.

경북간호사회 사무처장 모집

경북간호사회는 사무처장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이력서 등 지원서류 12월 28일까지 이메일(gba@koreanurse.or.kr)로 제출. 자세한 사항 간호사회 홈페이지(gbanurse.or.kr) 참조. 053)743-2721.

일반인용 심폐소생술 교육 동영상 제작

질병관리본부(본부장·정기석)는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 동영상을 제작했다.

질본은 '2015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동영상으로 제작했다.

누구나 동영상을 통해 1시간만 교육 받으면 심장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질본은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인공호흡을 꺼리는 일반인은 가슴압박소생술만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숙련된 강사의 가슴압박소생술 시범을 본 후 따라하는 방식으로 동영상을 제작했다.

또한 일반인이 의식을 잃은 환자를 목격해 119에 신고한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줄 모르더라도 응급의료 전화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동영상은 질본 홈페이지(cdc.go.kr) 자료실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정기석 본부장은 "전체 심장정지 발생의 52.3%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만큼 온 가족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에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병원 밖 급성심장정지 표준화 발생률은 2006년 39.3명에서 2015년 44.2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생존율은 2006년 2.3%에서 2015년 5.0%로 늘었다.

우리나라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06년 1.0%에서 2015년 13.1%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 39.9%(2009년), 일본 36.0%(2006년) 등과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를 보인다.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올바르게 시행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2~3배 높은 생존율을 보이므로 목격자의 심폐소생술이 매우 중요하다.

주혜진 기자 hjjoo@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김 옥 수 인쇄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다0636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 호 사 신 문 (02)2260-2571 FAX (02)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2260-2571 nursenews.co.kr

시·도 간호사회				산 하 단 체	
서울시	(02) 853-5497	충청북도	(043) 272-1573	병원간호사회	(02) 2261-1711
부산시	(051) 253-3824	충청남도	(041) 569-6348	보건간호사회	(02) 525-7318
대구시	(053) 756-8485	전라북도	(063) 255-3390	보건진료소장회	(02) 2266-7677
인천시	(032) 441-2925	전라남도	(061) 277-2292	보건교사회	(02) 527-3360
광주시	(062) 227-7561	경상북도	(053) 743-2721	마취간호사회	010-3103-0748
대전시	(042) 535-0739	경상남도	(055) 262-6006	보험심사간호사회	(02) 2263-1959
울산시	(052) 258-2311	제 주 도	(064) 747-3811	산업간호사회	(02) 716-9030
경기도	(031) 252-0351	군 진	(042) 878-4580	가정간호사회	(02) 2267-5688
강원도	(033) 263-6417			정신간호사회	(02) 425-1271
				노인간호사회	(031) 750-598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보건복지부 위탁 www.RNjob.or.kr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대한간호협회·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2016 유휴간호사 현장실무훈련 지원사업 안내

유휴간호사 채용 > 현장실무훈련 참가 > 훈련비 지급

- 참가기관 기준(가, 나 요건 중 한 개 이상 충족)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예정) 병원
  나. 실습지도자 교육 및 간호관리자 교육 이수 병원
- 유휴간호사 기준 : 경력단절 기간 1년 이상 유휴간호사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훈련비 지급
유휴간호사를 (수습)채용한 병원에 현장실무훈련비 지급

기간	훈련비 지급	지급액
1주	50,000원 X 5일	250,000원
2주	50,000원 X 10일	500,000원
4주	50,000원 X 20일	1,000,000원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예시: 4시간 근무 50% 지급)

환자가 안전하고 국민이 행복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 확보!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앞장서겠습니다.

권역센터 안내
서울·강원 ☎ 02)2268-2631~3
인천·경기 ☎ 032)441-2926
대전·충북·충남 ☎ 042)825-0749
대구·경북 ☎ 053)756-8487
부산·울산·경남 ☎ 051)442-3824~5
광주·전북·전남·제주 ☎ 062)222-5025
※필요서류는 홈페이지(www.RNjob.or.kr)에서 다운로드